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3월 ~ 4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대만, 식품, 수입, 검사, 안전, 규정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대만, 식품, 수입, 검사, 안전, 규정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5. 11. 13
수입식품이 점령한 대만

2016. 12. 17
대만, 수입식품 기록저장
의무 규정 수정

2017. 3. 14
즈슈핑, 대만 식품
안전문제에 대답



핵심이슈
도출

“대만 위생복지부, ‘수입식품 체계적 검사 실시 방법’
개정 초안 발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대만 위생복지부, ‘수입식품 체계적 검사 실시 방법’ 개정 초안 발표

5월 2일, 대만 위생복지부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수입식품 체계적 검사 실시 방법’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同 개정 초안은 리스크가 높은 수입 식품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체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제품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과정 사항을 명확히 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 검사 대상 범위에 수산물과 유제품을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기존 ‘기타 소 관련 제품’ 중 우유 및 유제품의 (체계적 검사에 대한) 면제 규정을 삭제한다. 체계적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수입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원산지 증명 서류 및 제품 위생 증명 서류 첨부 규정이 추가되었다. 둘째, 체계적 검사가 면제 되거나 3년 이상 실제 검사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재검토를 통해 관련 수입 업체에 대해 서면 혹은 현장 조사가 필요한 지 결정한다.

이번 개정 초안 중에서 수산물과 유제품 관련된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외 규정은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향후 대만에서 동물성 제품을 포함한 수입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대만에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수입식품 체계적 검사 실시 방법’의 변경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특히, 체계적 검사 실시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검사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식품 체계적 검사 실시 방법’이 발표와 동시에 실행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식 발표 일자를 숙지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개별 기업은 대만 내 높아지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식품 안전 관련 규정 및 법규를 통해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당 개정 관련내용은 하기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law.moj.gov.tw/Law/LawSearchResult.aspx?p=A&t=A1A2E1F1&k1=%E8%BC%B8%E5%85%A5%E9%A3%9F%E5%93%81%E7%B3%BB%E7%B5%B1%E6%80%A7%E6%9F%A5%E6%A0%B8%E5%AF%A6%E6%96%BD%E8%BE%A6%E6%B3%95>

1. 預告修正「輸入食品系統性查核實施辦法」第四條、第五條、第八條及第三條附表草案, 衛生福利部, 2017.5.2.